새해 스크린 빛낼 예술영화 '한자리'

●광주극장 1월 개봉작

부탄 민주주의 다룬 '총을 든 스님'부터
여성 예술가 삶·일상 조명하는 '쇼잉 업'
한국사회 노인·청년 문제 다룬 '부모 바보'
오기가미 감독 블랙코미디 신작 '파문'까지

▲'총을 든 스님'

▲'쇼잉 업'

광주극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예술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스님의 독특한 여정을 통해 부탄의 민주주의를 그려낸 영화부터 한국사회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까지 다채롭다. 신년을 맞아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줄 개봉작들을 소개한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상영 중인 '총을 든 스님'은 부탄에 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교실 안의 야크'를 연출한 파오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신작이다.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부탄에 일기 시작하면서 '총을 구해오라'는 큰 스님의 한 마디가 불러온 일련의 사건들이 긴장감과 웃음을 유발하며 큰 깨달음을 불러 일으킨다. 제96회 아카데미영화제 숏리스트 선정작이자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 전세계 우수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8일 개봉한 '쇼잉 업'은 예술가로서의 삶과 가족, 친구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여성 예술가 '리지'가 발견한 작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 독립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퍼스트 카우'의 켈리 라이카트 감독과 감독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미셸 윌리엄스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지난해 카이에 뒤 시네마 '올해의 영화' 10위, 전미영화비평가협회 선정 독립영화 10 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각종 영화제와 매체에서 호평 받았다.

9일에는 '부모 바보'가 스크린에 내걸린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영상영화학전공 워크숍 수업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화제를 모았다. 사회복지사인 진현은 지각을 일삼는 사회복무요원 영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어느 날 진현은 영진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진을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준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순례는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에서 수급자로 지정해주지 않아 사회복지사인 진현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오는 17일에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블랙코미디 신작 '파문'이 관객들과 만난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명수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요리코. 매일 생명수에 기도를 올리고 정원을 정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남편이 암에 걸려 돌아오며 잔잔했던 요리코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카모메 식당' 등 작품으로 유명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은 이 작품으로 33회 일본영화비평가대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요리코 역을 맡은 배우 츠츠이 마리코는 같은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상영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전국 1위

광주문화재단, 市·5개 자치구 우수 협업성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지난해 광주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93.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의 총 지원금액은 3천400억원이었다. 광주시 지원금액은 123억원으로 9만4천822명에게 1인당 13만원이 지급됐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5개 자치구 청장과 면담을 통해 문화누리카드사업 활성화로 취약계층 문화격차 완화에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문화재단의 협업 결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23억원 중 115억원이 사용됐다. 전해와 대비해 7.64% 신장의 비약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만원 인상돼 1인당 14만원이 지원되며, 수급자격이 유지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재충전된다.

신규 발급 시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오는 2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지역 여성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 위한 과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핵심 노동연령인 24-54세 여성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제활동 관련 실태를 조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여성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마인드링크(청년정신보건사업) 사업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여성 취업자는 '유연근무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유자녀 노동자는 돌봄시간 확보를 원했으며, 모든 세대 여성 노동자의 일과 생활, 삶의 균형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체 업종별·직무별 근무시간 유연화 컨설팅 지원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체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희망하는 일·업종이 전공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40%, 24-39세 청년 구직자의 경우 58.8%로 나타나 직업 적성과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경험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구직여성의 업무적성검사 확대, 인턴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제안했다.

24-39세 청년여성 구직자는 '업종별 다양한 일자리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취업에 필요한 제도로 응답했다. 30-34세 청년여성은 '성, 연령, 차별 금지 강화'를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해 동 연령대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차별을 더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근로단계(채용-배치-임금-교육-승진-일·생활균형-퇴사)별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지적 인사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청년 클래식음악 예술단체 '아르플래닛' 2기 멤버 모집

24일까지 피아노·관현악 파트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클래식음악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이 2025년을 함께할 2기 멤버를 모집한다.

아르플래닛은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창단 첫 해인 지난해 총 6회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중 2회가 전석 매진됐다. 평균 객석 점유율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역 클래식 음악 팬들의 큰 호응을 확인했다.

모집 대상은 광주·전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출신인 만 39세 이하 클래식 음악 전공자다. 피아노 및 관현악 파트 부문 멤버를 모집 중이다.

선발된 멤버에게는 다양한 테마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음악적 지식을 나누고 동료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각종 기획 실무는 기획자가 전담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과 연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및 공연 사진·영상 무료 제공, 개인공연 진행시 공연기획료 및 홍보비 할인, 공식 수료증 발급, 최소 2회의 무대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플래닛 공식 블로그 및 공식 SNS 계정 확인.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